

HEADLINE NEWS

커뮤니티의 건강지표를 알려 주는 웹사이트 개설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시는 커뮤니티들의 건강지표를 알려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각종 정보를 GIS 도면을 통해 제공해주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주민의 평균운동량, 비만율, 흡연율 등과 같은 건강지표뿐만 아니라 보건시설 서비스 현황, 공원·레크리에이션 시설과의 접근성, 커뮤니티의 인구·사회·경제 지표 등이다.

이 웹사이트는 각 커뮤니티 사이의 건강 불균형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토 공중보건부와 성 마이클 병원의 내부도시 건강연구센터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www.torontohealthprofiles.ca/index.php)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시나리오 기반 지역계획 수립방법 도입 (애틀랜타)
- ② 도시의 중심거리 다양성 제고를 위한 계획시스템 촉구 (영국)

도시환경

- ③ 東京都와 22개 금융기관의 ‘환경파이낸스 동경회의’ 개최 (동경도)
- ④ 「녹색성장 프로그램II」 법안 통과 (펜실베이니아주)

도시교통

- ⑤ 카풀 촉진을 위해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카풀 마일리지 제도 도입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 ⑥ 市전역의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웹사이트 개설 (필라델피아)
- ⑦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차량 안전석 점검행사 개최 (샌디에이고)
- ⑧ 택시 승객에게 인터넷 서비스 제공 (뉴욕)

사회복지·문화

- ⑨ 노년층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정책 보고서 출간 (미국)
- ⑩ 저소득층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시티리빙(City Living) 프로그램 운영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市)
- ⑪ 자녀의 납중독 예방을 위한 건강행사 개최 미국: 뉴올리언스)

행정

- ⑫ 주민참가형 발전사업 지원 (오사카府)
- ⑬ 도시간 협력을 위한 합동 GIS 웹사이트 사업 착수 (텍사스주: 타일러市)

① 시나리오 기반 지역계획 수립방법 도입 (애틀랜타)

미국 애틀랜타 대도시권의 도시계획기구인 ARC(Atlanta Regional Commission)는 전통적인 단일 계획 수립방법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나리오 기반 지역계획 수립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향후 25년 이내에 애틀랜타 지역의 인구가 600만명을 돌파하여 교통 혼잡,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인식과, 급성장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데 배경을 갖고 있다. 이 새로운 도시계획 방법론은 최근의 지역종합계획 및 2030년 교통수요 예측에도 도입되었으며,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Envision 6+'라고 불리는 교통 및 토지이용 계획에 적극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ARC는 이러한 시나리오 기반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공무원, 시민, 개발업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의 장래상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www.atlantaregional.com/transportationair/envision6.html)

② 도시의 중심거리 다양성 제고를 위한 계획시스템 촉구 (영국)

영국의 NEF(New Economics Foundation)는 영국 도시들을 대상으로 중심거리의 고유성을 분석한 결과, 획일화되어가는 복제도시(Clone Towns) 현상을 관찰하였다. 복제도시 현상은 중심상업거리에 각종 글로벌 또는 내셔널 체인점이 난립하여 지역의 고유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의 42%가 이미 복제도시 현상을 보이며 26%는 복제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EF는 이러한 도시의 획일화를 막고 중심거리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개발업자들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상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www.planningportal.gov.uk/england/professionals/en/1115311769730.html)

③ 東京都와 22개 금융기관의 ‘환경파이낸스 동경회의’ 개최 (동경도)

일본 東京都는 도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22개 금융기관 및 업계단체와 함께 ‘환경파이낸스 동경회의’를 개최하였다. 都는 지역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 융자제도 등을 개발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이 회의에서 東京都는 우선 환경배려형 경영을 하는 기업 및 도민, 비정부단체(NGO)의 환경활동에 대한 융자, 기부 등과 관련된 정기에금, 펀드형 ‘동경의 환경을 재생하는 도민참가형 금융상품’의 도입을 요청했다. 또한, 환경배려형 기업을 우대하는 금융제도의 도입도 제안하였다. 都는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 적용시 도내 사업자의 평가, 개발된 금융상품의 PR 등의 형태로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www.nikkei.co.jp/news/retto/20050016c3b1604o15.html)

④ 「녹색성장 프로그램II」 법안 통과 (펜실베니아주)

미국 펜실베니아주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주위 환경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에드랜들 주지사에 의해 제안된 「녹색성장II(Growing Greener II)」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999년 전(前) 주지사인 탐 리지에 의해 발족된 녹색성장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프로그램이며, 앞으로 6억 2천5백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여 州의 농지와 오픈스페이스 보전, 습지보전,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된다.

(www.growinggreener2.com)

5 카풀 축진을 위해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카풀 마일리지 제도 도입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미국 뉴욕주의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당국은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의 카풀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은 카풀 참여 축진을 위해 카풀 참여자에게 참여횟수에 따른 카풀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적립 후 상품권 등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NuRide'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카운티 공무원과 이 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편도 1통행에 대해 1달러의 적립금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웹사이트의 양식을 이용해 목적지, 시간, 동행자에 대한 선호도 등을 기입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는 기업체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다. 최근 3개월간 443명의 회사원이 참여했던 시행결과에 따르면, 2,534달러에 해당하는 마일리지가 부여되었고, 1,051대의 교통량 감소효과와 함께 12톤에 해당하는 대기오염 배출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westchester.com/Westchester_News/Westchester_Traffic_News/New_Online_Ride-Sharing_Program_Rewards_Commuters_200504155080.html)

6 市전역의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웹사이트 개설 (필라델피아)

미국 필라델피아市の 주차장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인 PPA(Philadelphia Parking Authority)는 최근 市전역 1,000여개의 노외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PPA에 의해 운영되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사설 노외 주차장까지 총망라하는 이 웹사이트는 대상범위 면에서 전례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리정보체계(GIS)를 기반으로 하는 이 웹사이트는 주차장의 위치뿐만 아니라, 주차 가능여부, 요금정보 등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주차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emediawire.com/releases/2005/5/emw235108.htm)

7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차량 안전석 점검행사 개최 (샌디에이고)

미국 샌디에이고시는 '안전한 어린이를 위한 연맹(Safe Kids Coalition)'과 함께 어린이의 안전 향상을 위한 차량좌석 정밀점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Clairemont 커뮤니티 서비스센터에서 2005년 2월 4일에 열렸으며,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관리 소속의 기술자들이 차량에 설치된 어린이 안전석을 점검하였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차량 좌석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평균적으로 차량 좌석에서 발생하는 결함의 5가지 중 3가지는 어린이들에게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부모들은 차량에서 자녀들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www.sandiego.gov/press/050131.shtml)

8 택시 승객에게 인터넷 서비스 제공 (뉴욕)

미국 뉴욕시에서는 Interactive Taxi라는 한 택시회사를 중심으로 택시 운행 중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범적인 사업을 2005년 2월부터 검토하고 있다. 이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택시 승객은 목적지로 가면서 쇼핑, 각종 공연, 숙박업소, 관광지 등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필요할 경우 택시 안에서 바로 공연 티켓 구입 및 호텔 예약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약 600여 대의 택시에 설치하게 될 이 인터넷시스템은 지난 2002년에 설치되었던 시스템(실시간이 아닌 저장된 정보만을 제공했었음)을 개선한 것으로 택시업계 관계자는 이를 통해 대(對)승객 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택시 이용률이 높아져 택시기사의 수입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택시회사 측은 각종 광고 유치를 통해 수입원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시카고, 보스턴 및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운영 중이다.

(www.internetweek.com/allStories/showArticle.jhtml?articleID=59300938)

9 노년층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정책 보고서 출간 (미국)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AARP 재단은 급증하는 노년층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고서를 최근 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부분 도시들이 정년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50세 이상 노년층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부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년층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활력 있는 커뮤니티 건설과 노년층을 고려한 주택 및 교통 환경 조성이 중요한 것으로 내다보았다. 보고서는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assets.aarp.org/rgcenter/il/beyond_50_communities.pdf)

저소득층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시티리빙(City Living) 프로그램 운영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市)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Minneapolis)市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소유와 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해 시티리빙(City Liv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시장 이율보다 저렴한 모기지 대출(Mortgage Loans)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구입 워크숍을 통해 주택구매 교육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티리빙 프로그램을 통해 1만 가구 이상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개량 시 주택개량 대출을 1%의 이자율과 25년 상환 조건으로 최고 25,000달러까지 제공하고 있다.

(www.ci.minneapolis.mn.us/cped/city_living.asp#TopOfPage)

사회복지·문화/행·재정

■ 세계도시동향 ■

(특) 자녀의 납중독 예방을 위한 건강행사 개최 (미국: 뉴올리언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는 어린이 납중독 예방의식 고취를 위한 건강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로 7번째 맞는 이 건강행사는 6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납중독 무료검진을 비롯하여, 교육정보 제공, 조량말 타기, 음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올리언스시는 납과 같은 유해물질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6세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들 가운데 납중독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어린이들에게는 무료로 납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납중독은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질병으로 어린이에게 청력 장애를 일으키며, 두통, 학습장애, 집중력 및 발육 저하 등의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cityofno.com/portal.aspx?portal=1&load=~/PortalModules/ViewPressRelease.ascx&itemid=2556)

(특) 주민참가형 발전사업 지원 (오사카府)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는 2006년도에 보육소와 상점가 등의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태양광발전장치를 보급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만든다. 오사카府의 환경보전과 부민의 환경의식 향상이 목표인 이 사업의 명칭은 '부민 공동발전 추진사업'이며,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보육소와 유아원, 상점가, 구민회관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시설과 지역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여유분은 전력회사에 팔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주민과 사업자의 공동출자와 기부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2005년에는 부(府)와 환경비영리조직, 주택회사 등이 심사·보급단체를 설립할 예정이며, 2006년부터는 제1탄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와 지역주민단체 등 3단체를 선정하여 사전조사 비용으로 50만 엔씩 조성할 계획이다.

(www.nikkei.co.jp/news/retto/20050304crf0400u04.html)

도시간 협력을 위한 합동 GIS 웹사이트 사업 착수 (텍사스주: 타일러시)

미국 텍사스주 타일러(Tyler)시 의회는 2004년 12월 15일, 캔자스주 스미스 카운티(Smith County)와의 합동 GIS 웹사이트 사업을 승인했다. 합동 GIS 웹사이트는 공무원 및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지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도 주소, 구역 및 토지이용, 부동산 소유와 연구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 사업은 두 지방자치정부간 협력으로서의 의미는 물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등을 공유하여 중복업무의 방지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국은 2005년 안에 웹사이트 (www.smithcountymapsite.org)를 통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향후 수 개월간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www.cityoftyler.org/articleGUID_C27E8B25-7D5E-409A-877E-4814246B82BB/2A7D1914C7B5728876BCBA18455887B5/default.html)